

옴니프리즈 제로니까! 젓곳은 날씨에도 OK!

컬럼비아가 자체 개발한 쿨링 테크놀로지 '옴니프리즈 제로'가 적용된 재킷을 입고 숲길을 달리는 모델들. '옴니프리즈 제로'는 주로 여름철 반팔니트에 적용되어 온 기술이지만 컬럼비아가 이번 시즌부터 봄 재킷까지 확대 적용해 요즘 날씨에도 시원하고 상쾌하게 입을 수 있게 됐다.

컬럼비아, 간절기 아이템 출시

맘·수분 닿으면 옷감의 온도 저하 독자적 테크놀로지로 기능성 강화 봄은 물론 여름까지 두루 착용 가능 입체적 핏...스타일리시 패션 완성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 한낮에는 땀을 흘릴 만큼 더운 고온 현상이 나타나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분다. 예측불허의 날씨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야외활동 스타일링이 고민이다. 고민을 해소지만 결국 답은 역시 아웃도어 아이템이다.



라피드 체인 재킷



아이시 브리치 하프짐



컨스퍼러시 II 아웃드라이

●독자적인 테크놀로지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스타일 UP!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는 자체 개발한 테크놀로지를 신체 부위 특성에 따라 적용해 아웃도어 특유의 기능성을 한층 강화한 간절기 아이템을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첫 선을 보여 각광 받았던 쿨링 테크놀로지 '옴니프리즈 제로'를 간절기 재킷까지 확대 적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옴니프리즈 제로'는 소재에 적용된 블루링이 땀이나 수분에 닿으면 반응하여 옷감의 온도를 낮춰 시원함을 주는 신개념 냉감 기술이다.

주로 여름철 반팔 니트에 적용되는 기술이지만 봄 재킷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해 움직임이 많은 러닝, 바이크 등 스포츠 활동 시에 입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했다. 가벼운 30데니어 소재를 사용했다. 작게 말아서 휴대하기도 간편하다. 남녀 각각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신축성이 좋고 몸에 밀착되는 핏감이 우수한 '아이시 브리치 하프짐(Icy Breezy Half Zip·10만8000원)' 니트도 냉감 소재 '옴니프리즈 제로'를 사용해 땀이 많은 활동에 적합한 제품이다. 땀이 많은 나는 부위에는 흡수·속건 소재인 '옴니위크 이백'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니프리즈 제로' 제품으로 여름까지 거뜰!

컬럼비아의 대표 간절기 아이템인 '라피드 체인 재킷(Rapid Chain Jacket·15만8000원)'은 자체 개발한 쿨링 소재와 습기를 빨아들이고 빨리 말려주는 흡수·속건 소재가 스마트하게 결합된 제품이다. 땀이 많이 나는 저드라이부터 옆구리에는 쿨링 기술 '옴니프리즈 제로'가, 그 외의 부분은 땀을 빠르게 흡수하여 배출하는 기술인 '옴니위크 이백'이 적용됐다. 덕분에 반팔을 입기엔 이르고, 본격적인 방수·투습기능 재킷이나 바람막이 재킷을 입기에도 애매한 요즘 날씨엔 물론 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해 움직임이 많은 러닝, 바이크 등 스포츠 활동 시에 입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했다. 가벼운 30데니어 소재를 사용했다. 작게 말아서 휴대하기도 간편하다. 남녀 각각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신축성이 좋고 몸에 밀착되는 핏감이 우수한 '아이시 브리치 하프짐(Icy Breezy Half Zip·10만8000원)' 니트도 냉감 소재 '옴니프리즈 제로'를 사용해 땀이 많은 활동에 적합한 제품이다. 땀이 많은 나는 부위에는 흡수·속건 소재인 '옴니위크 이백'

을 사용해 쾌적함을 보강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컬럼비아 '라피드 체인 재킷'과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면 역시 '컨스퍼러시 II 아웃드라이'(18만8000원) 슈즈다.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 가벼운 무게가 주요 특징이다. 최첨단 방수·투습 소재 '아웃드라이'를 적용해 번덕스러운 봄 날씨에 완벽 대비할 수 있다. 습기는 막아주고 땀은 모두 날려버려 항상 쾌적하다. 또 향상된 '테크라이트' 기능을 적용해 장시간 산iero 쿠션이 쉽게 주저앉지 않고 쿠션감이 오래 지속된다.

워킹, 트레킹 등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강력한 접지력, 뛰어난 쿠션감으로 거친 지면의 산행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트레일화다. 기존 등산화 같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에 화사한 컬러가 매치되어 도심 일상에서도 잘 어울리는 크로스오버 제품이다.

웨스트백이나 메신저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멜티드 테레인 웨스트 백'(4만3000원)까지 갖추면 간절기 아웃도어 스타일이 완성된다. 작은 소지품과 물통을 수납할 수 있어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이나 스포츠를 즐길 때 유용한 아이템이다. 외부 수분을 뽕겨내는 발수, 오염 방지를 위한 기능성 소재를 더해 더욱 실용적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마운틴하드웨어도 '시즌리스' 전략

에너지텍 옛지 재킷, 봄·여름 두루 착용

전문가와 선수들을 후원하는 한편 고기능성 제품으로 유명한 마운틴하드웨어가 요즘은 물론 여름까지 두루 활용 가능한 시즌리스 제품으로 구성된 '어드벤처 아웃도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등산이나 트레킹, 러닝, 캠핑 등 어떠한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하다.

봄·여름 아웃도어 활동의 필수품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방풍재킷부터 냉감 소

재를 적용한 티셔츠, 모자, 장갑 등 다양한 제품들이다. 짧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활용도가 높은 시즌리스 제품으로 구성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전문가가 원점에서 실제 착용해 기능성을 입증한 제품도 포함돼 있다.

대표 제품인 '에너지텍 옛지 재킷'(22만원·사진)은 시원함이 느껴지는 블루 컬러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춰 심플함이 돋보인다. 봄철 아웃도어 활동의 적인 땀 제거에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드라이큐 이백'과 스트



레지 소재를 결합해 최고의 기능을 갖췄다.

한편 마운틴하드웨어는 글로벌(본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개최

한다. 신제품 구매 시 최대 36%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더불어함 이벤트'다. 20일까지 마운틴하드웨어 전국 매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운틴하드웨어 홈페이지(kr.mountainhardwea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KT '부당한 하도급' 과징금 20억원

엔스퍼트 'K패드' 발주 취소 끝에 상장 폐지 KT "단말기에 결합...검수 통과 못해" 반발

KT가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제품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중소기업 엔스퍼트에 태블릿PC 'K패드' 20만대를 주문했다. 하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출시한 'K패드'(3만대) 판매마저 부진했다. 이에 KT는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발주를 미뤄오다 2011년 나머지 물량인 17만대에 대한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발주지연 등에 따라 엔스퍼트는 2010년 매출액이 374억원으로 전년(8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유동성 악화로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 발주 취소에 해당 한다"며 "엔스퍼트는 당시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퍼트에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어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KT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닛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는 것이다.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건보공단, 537억원 담배 소송 제기

KT&G 등에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물어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500억 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흡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 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37억원은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했거나,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다.

공단은 이 가액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외부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피해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경제 브리핑

오크밸리, 봄 시즌 맞아 패키지 상품 출시



오크밸리(강원도 원주·사진)는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패키지를 출시했다. 오크밸리 콘도 1박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매, 수영장 또는 사우나 50% 할인권 4매로 구성된 롯데월드 패키지

는 10만8000원~14만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크밸리 내 '뮤지엄 산(MUSEUM SAN)'의 입장권과 함께 구성된 뮤지엄 패키지는 객실 타입에 따라 10만6000원~14만6000원으로, 콘도 1박과 사우나 50% 할인권, 그리고 뮤지엄 내 종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16일을 시작으로 23일, 그리고 5월부터는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콘도에 투숙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에게 혜택을 준다. 수, 목, 금요일에는 바비큐 구이와 숙박 등이 포함된 'BBQ 패키지'를 운영한다.

센터폴, 제1회 키즈 모델 선발대회 개최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센터폴이 올 하반기 키즈라인 출시에 앞서 키즈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센터폴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키즈라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키즈라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동 모델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 대상은 6세부터 11세 남녀 아동(2004~2009년생)이다. 15일부터 5월25일까지 센터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

CJ '슈퍼6000클래스' 우승 경쟁 더 치열해졌다

엑스타팀·팀106 합류...20일 테백서 개막

우승 후보만 10명, 슈퍼6000클래스가 더 뜨거워진다!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4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20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는 중국, 일본에서의 아시아전을 포함해 총 8전의 경기가 치러진다.

2014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4개 클래스(슈퍼 6000·GT·슈퍼 1600·엑스타V70) 중 메인 클래스인 슈퍼 6000클래스의 경쟁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해졌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엑스타팀(감독 김진표)과 팀106(감독 류시원)이 슈퍼6000클래스에 합류하면서 총 13개팀 2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량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한 전 F1 드라이

버 이데 유지(일본)가 엑스타팀 소속으로 슈퍼 6000클래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08년 원년 챔피언 조항우(아트라스BX)가 복귀하는 등 출전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해졌다.

슈퍼레이스의 김준호 대표는 14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번 시즌은 어린이날 이벤트,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나이트레이스 등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모터스포츠 대중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20일부터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개최된다.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 참가한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 뉴스7